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와 붉은 소음의 상상력

— 1960년대 소리의 문화사 연구를 위하여 (1) —

임태훈*

1. 序: 청각(聽覺)의 대한민국
2. ‘앰프村’의 계보
3. 쿠데타의 청취자들
4. 소음 관제와 붉은 소음
5. 앰프村의 음향공동체
6. 시인과 소음
7.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요약

이 글은 1961년에서 1968년 사이, 서로 얽히고 저항했던 세 개의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고찰이다. 우선 앰프村 건설사업과 프로파간다 그리고 ‘통금’을 통해 읽는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 그리고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의 균열을 따라 외동하는 ‘붉은 소음’, 마지막으로 국가와 근대의 ‘소리’에 불화하는 이들의 음향전(音響戰, sonic warfare)에 대해 분석한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을 위한 탐구이기도 하다. 최인훈의 소설 『주석의 소리』(1969), 『총독의 소리』(1967~1968) 연작에서, 각각 환상의 상해임시정부와 조선총독부 지하부의 해적방송을 듣는 청취자는 왜 ‘시인’으로 설정되어 있을까? 김수영은 이북방송을 또렷한 입체음으로 듣는 순간을 『라디오界』(1967)에 적었다. 반공주의가 기세등등한 박정희 정권의 남한 사회에서 ‘붉은 전파’의 월경(越境)이 시인에게 불러일으킨 상상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신동엽은 왜 라디오 DJ가 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전파에 싣고 싶어 했던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1960년대 소리의 문화사 연구를 위한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운드스케이프, 붉은 소음, 소리의 문화사, 앰프村, 음향전, 국가, 음향공동체, 반공주의, 국민 미디어, 공보, 통금, 프로파간다, 정동, 국민의 신체, 신동엽, 김수영, 최인훈)

www.kci.go.kr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 序: 청각(聽覺)의 대한민국

1961년에서 1968년 사이의 시간은 5·16과 한일회담을 둘러싼 우여곡절 그리고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치른 정치적 격동기였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도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라디오와 방송은 식민지기 경성 모더니티의 국지적·계급적 한계를 넘어 국민 미디어다운 전국적인 보급이 이뤄지게 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라디오 방송의 전국 가청권화(可聽圈化)가 라디오 기기의 보급을 추월해 추진됐다. 이것은 5·16 직후 공보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 앰프村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었으며, 당연히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국가가 지금 무엇을 ‘잘’ 하고 있는가를 벽촌의 노인들까지 수시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사업은 미디어 환경의 주도권이 텔레비전으로 넘어가는 1968년 이후에는 중단되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면 라디오는 전국 어느 집이나 한 대쯤 구비된 완전한 국민 미디어로 안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앰프村 방송 특유의 주파수 선택 제한 역시 구시대 풍속으로 밀려나게 된다. 라디오 방송이 집단적인 청취에서 사적인 소리의 체험으로 궤도를 되찾아가게 된 것이다.

한편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한의 방송 출력은 북한보다 떨어져서 전파월경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늘 있는 일이었다. 이른바 ‘붉은 소음’이라 불렀던 북한의 대남방송도 꽤 선명한 음질로 들을 수 있던 시기가 1960년대였다. ‘붉은 소음’을 듣는 일은 반공범위반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통치하는 반도의 절반에 고립되어 있던¹⁾ 인민들에게 체제의 외부, 비(非)

1)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해외여행’은 계급체험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여권과 환을 때문이었다. 전자는 국민 가운데 반도(半島)를 떠나 세계와 접촉할 이의 자격조건에 관한 문제이며, 후자는 해외여행이란 곧 자국 화폐를 여행국의 화폐로 바꿔 소비하는 일이기에 자국 ‘화폐’의 가치가 여행자 국민의 운신(運身) 폭을 얼마만큼 보장해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게 한다. 1960년대 남한 사회에서 이 두 가지 조건 혹은 제한을 통과하고 멀든 가깝든 반도(半島)의 바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해외여행의 ‘可否’를 통과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급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이 시기 외국은 아무나 갈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國內)’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가령 김찬삼의 세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은밀한 기제이기도 했다. ‘붉은 소음’은 통금(通禁)의 밤에 더 잘 들을 수 있었고, 함부로 고백할 수 없는 체험으로 한껏 고양됐다. 1960년대의 밤은 아이러니하다. 국가가 국민을 향해 신체리듬의 동기화(同期化)를 명령하는 노골적인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가 다름 아닌 ‘통금의 밤’이었다. 하지만 그 칙묵의 대기 속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휴전선을 넘나드는 ‘붉은 소음’은 박정희의 ‘국가’를 감잡해하는 이들의 불온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시대와 함께 소용돌이쳤다.

이 글에서는 이 시기(1961~1968년)에 서로 엇히고 저항했던 세 개의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우선 앰프차 건설사업과 프로파간다 그리고 ‘통금’을 통해 읽는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 또 하나는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의 균열을 따라 와동하는 ‘붉은 소음’, 마지막으로 국가와 근대의 ‘소리’에 불화하는 이들의 음향전(音響戰, sonic warfare)을 되짚어보려 한다. 세 개의 사운드스케이프에 휩싸여 인민의 신체는 국민의 자리에 배치되고 훈육 되지만, 또 한편에선 인민 스스로 신체에 각인된 ‘국민 뒎’을 해체하기도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을 위한 탐구이기도 하다. 최인훈의 소설 『주석의 소리』(1969), 『총독의 소리』(1967~1968) 연작에서, 각각 환상의 상해임시정부와 조선총독부 지하부의 해적방송을 듣는 청취자는 왜 하필 '시인'으로 설정되어 있을까? 김수영은 이북방송을 또렷한 입체음으로 듣는 순간을 『라디오界』(1967)에 적었다.²⁾ 반공주의가 기세등등한 박정희 정권의 남한 사회에서 ‘붉은 전파’의 월경(越境)이 시인에게 불러일으킨 상상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신동엽은 왜 라디오 DJ가 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전파에 싣고 싶어 했던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1960년대

계 여행기가 1960년대에 그토록 열광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남한 인민들의 생활이 그만큼 반도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 2) 이 이상한 일을 놓고 나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한참이나 생각해 본다/ 지금은 너무나 또렷한 立體音을 통해서 들어오는 以北放送이 不穩放送이/ 아니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지금 일본말 방송을 안 듣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미련도 없이/ 회한도 없이 안 듣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 김수영, 『라디오界』(1967)

소리의 문화사 연구를 위한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2. '엠프村'의 계보

1960년대 남한은 전쟁동원에서 경제동원으로 국가의 조직원리가 바뀜에 따라 통치양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산업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화 프로젝트가 전면화하고 반공정책은 후면화(後面化) 하면서, 근대화논리가 반공 논리를 품어 안아야 했는데³⁾,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권력은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매스미디어로부터 교육이나 집회 행사, 텍스트 생산과 검열, 그리고 텍스트 유통에 이르기까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전방위적으로 동원했다.⁴⁾ 이 글에서는 특히 1961년에서 1968년 사이에 등등(騰騰)했던, 국가주도의 엠프村 건설기획에 주목한다.

박정희 정권의 엠프村 건설기획의 원형은 나치스의 선전장관 괴벨스가 추진했던 '제국 스피커 전봇대' 계획이었다. 라디오를 20세기의 '제8번째 대권력'이라 규정했던 괴벨스는 1938년부터 독일 전역을 방송으로 잇는 6,000개의 제국 스피커 전봇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938년 여름까지 브레스라우에 설치된 100개를 마지막으로, 이 계획은 전쟁의 발발과 함께 무산되고 말았다.⁵⁾

나치의 라디오 정책은 동맹국 일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放送』1939년 1월 호에서 요코미조 고키(横溝光暉)는 독일에 비해 적은 일본의 라디오 가입자수를 개탄하면서 “라디오는 국내외에 있는 전 독일인의 정신적 결합의 띠”라는 괴벨스의 말을 인용해, 일본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직접 이어주는 띠가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

3)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2010.

4) 엄찬희, 『1960년대 한국영화 다시 읽기』,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2』, 현실문화, 2009, 328쪽.

5) 이경분, 『프로파간다와 음악』,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27쪽.

6) 요시미 순야, 송태욱 옮김, 『소리의 자본주의』, 이매진, 2005, 352~353쪽.

같은 해 『放送』7월호와 8월호에서도 체신국 전무국(電務局) 무선과장인 미야모토 요시오(宮本吉夫) 역시 “라디오는 국가의 의사를 전달한다. 청취는 국민적 행위다. 한 가정에 한 대의 수신기를 갖추자!”라는 나치의 슬로건으로부터 논의를 출발해, 괴벨스의 라디오론을 참고해 만주사변(1931) 당시 방송의 효용에 대하여 이렇게 평했다.

만주사변에서 방송은 사변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국민들이 제국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것을 중대한 계기로 삼아 방송은 국민의 시국 인식을 철저히 심화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⁷⁾

미야모토의 설명을 따르면, 라디오가 ‘국민정신의 작흥(作興)’에서 중요한 것은, “전파로 일제히 국민에게 호소함으로써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과 감명을 주는 것이 쉽기 때문이며 민심의 진작이나 국민이 정신적으로 결합하는 데 이만큼 적합한 것도 없⁸⁾기 때문이었다.

1942년 11월호 『朝光』에도 “음악도 군수품”임을 강조하는 음악비평가 양훈의 글이 실렸다. 그는 음감이 전쟁에서 적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군수 기계와도 같은 것이며,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뛰어난 청력을 예로 들어, 크라이슬러가 오스트리아군으로 1차대전에 참전했다가 적군의 포탄 소리를 분석하여 적군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음감이 발달하면 청음기만으로 적의 비행기, 군함의 거리, 종류, 속력 방향, 침로(針路) 등을 거의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고도국방국가건설에 공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경분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양훈의 독자적인 생각은 아니었다.

이미 1940년 10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주관으로 개최된 음악 콩쿠르에서도 작곡, 기악, 성악 외에 ‘음감’ 부문을 넣도록 하였는데, 음감이 “국방상 필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음악적으로 훈련된 인간의 귀가 레이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인데, 이런 이야기가 당시 정설로 알려졌던 모양이다.⁹⁾

7) 요시미 순야, 송태욱 옮김, 『소리의 자본주의』, 이매진, 2005, 352쪽.

8) 같은 책, 35쪽.

9) 이경분, 『음악과 정치 그리고 맥락의 힘』, 웹진 SOUND@MEDIA, 2010.

1930년대 후반에서 1945년까지 만주국 관동군에서 근무했던 박정희에게도 ‘소리’와 ‘방송’이 유용한 전쟁 무기라는 사실은 상식이었다. 이 시기 그를 비롯해 조선 인민들에게 가장 극적인 라디오 체험은 천황 히로히토의 종전조서 방송이었다. 결사항전의 일억 옥쇄를 다짐했던 일제의 신민들이 천황의 말 한마디에 무장해제 된 것이다. 라디오와 앰프는 전쟁의 시작과 끝에서 이토록 위력적인 무기였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직후, 박정희 정권은 공보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공보부 조사국은 쿠데타 다음 달인 1961년 6월에 창설됐는데, 공보부 내부에 문화 선전국이 생겼으며 국립영화제작소도 함께 설치됐다. 공보부 직원도 종래 정원이 380명이었던 것을 세 배까지 증원해 960여 명으로 늘렸다. 공보부 장관은 정부의 모든 여론조사를 관장하는 권한을 가졌고, 공보부 차관은 국가심리전을 담당하는 ‘특수선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1961~1963년 사이에 심리전과 선전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며 공보부 내부에 내외문제연구소를 두고 북한의 진술을 분석하고, 문화정책을 입원하게 된다.¹⁰⁾ 앰프村 건설기획과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의 주무부서 역시 공보부였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힘입어 1959년까지 전국에 30만 대 정도였던 라디오 보급 대수는 1961년 말에 이르면 100만 대까지 단기간에 급증¹¹⁾한다. 라디오 생산과 보급, 앰프村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박

(<http://som.saii.or.kr/archives/feature/sound-politics/803>)

- 10) 천정환, 『간첩과 영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 1960년대 후반 반공영화 텍스트의 생산맥락을 중심으로』, 『2010년 한국현대매체연구회 4·19혁명 5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0.10.2 ; 이하나, 『1960년대 문화영화의 선전 전략』, 『한국근현대사연구』, 2010년 봄호, 제 52집 등을 참고.
- 11) ‘전국의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에 힘입어 기사화생한 회사가 금성이다. 당시 금성은 첫 국산 라디오를 개발해 시판에 나섰지만 밀수품에 밀려서 생산 중단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최고회의 포고령에 의해 ‘군용품 일제단속’ 방침이 발표 되는대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미군용 통신 계측기들까지 공장 뒷마당에 파묻는 야단법석을 떨어야 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해 가을 부산에 있던 금성 라디오 공장을 예고도 없이 방문해서 라디오 개발과 생산에 관한 전과정을 문의하고 돌아갔고, 그날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밀수품 근절에 관한 최고회의 포고령’이 발표됐다. 밀수된 외제 라디오가 시장에서 사라지자 국산 라디오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 김해수, 『아버지의 라디오』, 느린걸음, 2007, 159~164쪽 참고 김해수는 국산 라디오를 최초

정희 정권은 1961년에 KBS의 기구를 대폭 확장하고 서울 최초의 민간 방송인 MBC의 개국을 허용했다.¹²⁾

3. 쿠데타의 청취자들

국가는 앰프(amp)의 기능에 유비된다. 앰프는 소리를 증폭시키기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소리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이면서, 다양한 소리의 섞임을 조정할 수 있는 기계이기도 하다. 물론 앰프가 모든 소리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다. 이 통제력의 본질은 소리 그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전기적인 조작에 근거한다.

국가는 앰프처럼 사운드스케이프를 산출한다. 국가가 라디오, 텔레비전, 스피커, 앰프 등의 전자 미디어를 통해 ‘공간’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정동(affect)’¹³⁾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실로 위력적이다.

5·16쿠데타의 최초 점령목표도 남산의 중앙방송국이었다. 그날 새벽 5시, 전국에 이른바 ‘혁명공약’이 방송되고 오전 9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쿠데타는 사운드스케이프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 박정희와 혁명군 고위 장교들은 주조정실에서 방송실 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동 방송 연구소와 종로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도 군인들이 점령하고

로 개발한 금성사의 엔지니어였다. 참고로 그는 시인 박노해의 장인이기도 하다.

12) 『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308쪽. 참고로 1961년 5월 19일, KBS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혁명 지지 시가행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했다.

13) ‘정동(情動, affect)’은 자신에 의해 표현되고 타인에 의해 경험되는 감정경험을 뜻하며,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신체’의 어떤 한 상태가 아니라 ‘존재 능력의 연속적인 변이’를 문제시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국가와 자본은 (아울러 이에 유착된 온갖 권력들은) ‘정동’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없도록 우리의 ‘신체’를 혼육하고 정동을 통제한다. 군대는 이러한 현상을 가장 노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입버릇처럼 강조되는 ‘사기(士氣)’도 정동의 다른 말이다. 군인들의 ‘신체’에서 증진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사기’는 궁극적으로 전투능력의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 질 들뢰즈, 서창현·김상운·지울 평론번역모임 역, 『정동이란 무엇인가?』,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05. 참고

있었다.¹⁴⁾ 쿠데타의 첫 번째 전투는 심리전이었으며 박정희 정권 내내 이 전투를 지속했다. 말하자면 5·16은 음향전(sonic warfare)으로 정권을 찬탈한 한국 근현대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3·15 부정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승만 정부는 한 달 사이에 4,920대의 라디오를 벽촌에 보냈고, 장면 정부도 1961년 초에 라디오 2,500대를 농어촌에 배포했다.¹⁵⁾ 5·16이 성공한 음향전일 수 있었던 비결을 따져보면 1960년에서 1961년 사이의 집중적인 라디오 보급에 덕을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쿠데타의 폭탄(=라디오)을 대신 돌린 것은 앞선 정권이었던 셈이다.

쿠데타 세력은 국내의 일상적·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을 모두 심리전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 간주했고, 전시와 비전시 상황을 구별하지 않고, 결코 종료할 줄 모르는 ‘만유 심리전’을 이어나갔다.¹⁶⁾

당시 김수영은 혁명정부의 공약이 방송되는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지인의 집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목격한 쿠데타’가 아니라 ‘칭취한 쿠데타’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는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은 즉시 집을 나서 김이석의 집으로 갔다. 김이석의 집이라면, 그리고 김이석의 부인인 박순녀라면 몇날 며칠이고 그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되어서였다. 아니 그 순간, 김수영은 판단이고 예단이고를 할 틈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라디오를 통해 “반공을 국시로 하고…
…”¹⁷⁾라고 외치는 5·16의 공약을 듣는 순간, 거의 무의식적으로, 김이석의 집으

14) 『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306쪽.

15) 『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315쪽.

16) 천정환, 『간첩과 영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1960년대 후반 반공영화 텍스트의 생산맥락을 중심으로』, 『2010년 한국현대매체연구회 4·19혁명 5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0.10.2. 참고

17) ①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과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의 태세를 재정비 강화함으로써 외침의 위기에 대비하고, ② 국련(國聯) 헌장을 충실히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이행하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야 하고, ③ 구정권하에 있었던 모든 사회적 부패와 정치적인 구악을 일소하고, 청신한 기풍의 진작과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음으로써 민족 민주 정신을 함양하며, ④ 국가 자립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하여 기아 선상에 방황하는 민생고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로 달렸을지도 모른다.¹⁸⁾

훗날 문익환 목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재일 통일운동가 정경모도 그때¹⁹⁾ 온종일 라디오에 매달려 쿠데타의 진전 상황을 확인했던 일을 술회한 바 있다. 그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미국의 대응이었다. 영어에 능했던 그는 AFKN을 통해 정보를 구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은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날마다 라디오에 매달리다시피 미군 영어 방송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소이까. 그때 주한미군사령관은 매그루더였고 미국의 대리대사는 마셜 그린이었는데, 둘 다 각기 성명을 발표하고서 미국이 인정하는 것은 장면 총리의 합헌 정권(constitutional government)뿐이며 제멋대로 쿠데타를 일으켜 계엄령을 발포한 이른바 군사정권은 인정할 수 없음을 거의 매 시간 한 번씩 방송하면서, 행방을 감춘 장면 총리는 조속히 피난처에서 나와 사태를 수습해달라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었소이다.²⁰⁾

하지만 미국은 태도를 바꿔 박정희의 쿠데타를 인정했다. 혁명 1주년을 기념해 나온 박정희의 첫 번째 저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1962)을 보면, 민족개조론의 논지가 일관되게 펼쳐지는 가운데, 5·16 당시 쿠데타의 청취자들을 묘사하는 문장을 슬며시 끼워 넣었다.

대개 우리말에는 ‘나’라는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기에 뛰어 나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집에 왔더니 라디오가 혁명을 알려 주었다.’** - 이 문장에서 ‘나’라는 주어가 네 번 빠졌어도 문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나’라는 책임 있는 자의의식이 이룩되지 못하였으니 건전한 인격도 도의의 확립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²¹⁾

의 희망을 제고시키고, ⑤ 북한 공산 세력을 뒤엎을 수 있는 국가의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이룩한다. -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하면 된다! 펼쳐 일어나자』, 동서문화사, 2005, 257쪽.

18) 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화사, 2003, 308쪽.

19) 5·16 쿠데타 당시 그는 37살이었다.

20) 정경모, 『시대의 불침번』, 한겨레출판사, 2010, 165~166쪽.

21)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하면 된다! 펼쳐 일어나자』, 동서문화사, 2005, 72쪽. 강조는 인용자.

박정희는 ‘책임 있는 자의의식’이 없고 ‘건전한 인격’과 ‘도의를 확립’이 안 된 국민을 향해 말로만 계몽했던 것은 아니었다. 5.16군사쿠데타 직후에는 이른바 ‘팬스광’ 일제단속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건전한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 건설에 반하는 ‘팬스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고귀한 혁명정신을 망각하고 대낮에 팬스에 미쳐 놀아난 48명의 남녀가 검거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시다. 5월 24일 경기도청회의실에서 열린 군법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혁명정신을 모독한 팬스광들에게 일벌 백계의 본보기로서 각자 3개월 내지 1년의 징역을 언도했습니다.

(<KBS 영상실록 1961년>, 2005년 5월 15일 방송에서)

이 사건에 대해 여론도 꽤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혁명과업에 총진군해야 할 중대 시기임을 망각하고 ‘팬스’에 발광한 사람들의 처벌에 대하여 국민들은 ‘씩 잘한다’가 73.5%, ‘대체로 잘한다’가 17.1%로서 국민의 90.6%가 찬성하고 나머지 6.4%의 응답자만이 좀 지나치게 처벌했다는 의견을 표실했다.²²⁾

박정희는 국민이 ‘노동지교’의 금욕적 이데올로기를 체현하는 존재로 거둡나길 바랐다. 그의 자작시(1963)에서도 이 같은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이등 객차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22)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 292 (이중구 외,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2, 300쪽에서 재인용)

나는, 고운
네
손이 밍더라.²³⁾

1963년 민정이양 선거에서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팬스 따위에 발광하지 않고 땀 흘려 노동하는 국민이 되지는 그의 아젠다는 국민의 호감을 얻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해인 1964년, 굴욕적인 조건으로 한일회담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5·16쿠데타를 자평타평 ‘혁명’이라 부를 수 있었던 정치적 명분 또한 빠르게 휘발되었다.

4. 소음 관제와 붉은 소음

1964년 7월, 6·3사태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던 어느 날의 일이다. 계엄사 치안처(治安處)는 매연과 소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매연 933건, 취명(사이렌) 134건, 그리고 상당수의 확성기 소음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²⁴⁾ 명목은 매연·소음 단속이었지만 실상은 정치집회 단속이었다. 1962년부터 서울시 내 24개 처에서 운영됐던 음향관제 구역의 주 업무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에 반대하는 소리가 관제 되어야 할 ‘소음’이었던 것이다.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로 3·24 시위에서 불붙기 시작한 한일협정 반대시위의 기세는 꺾이게 된다. 신문과 방송에선 이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가 방송현업인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한 ‘앵무새 사건’이 6월 4일의 일이었다.²⁵⁾

23) 이종구 외,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2, 298~299쪽.

24) 『매연·소음 단속』, 『경향신문』, 1964.7.17.3면.

25) <앵무새>는 방송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5분길이의 방송 시사칼럼이었다. 일상적이고 직설적인 표현과 암시적 야유, 반어적 기법의 어투에 날카로운 여자 성우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강렬한 사회비판의 효과를 만들었다. 일반의 청취율뿐 아니라 동아방송 사내의 청취율 또한 압도적으로 높았던 프로그램이었다. -백미

계엄령 동안에는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시간을 앞당겼다. 통금의 밤은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가 위세 등등하게 현현하는 시간이었다. 도둑 쫓던 시민도 “통금위반이다.”라는 말엔 그 자리에서 멈춰야 했다.²⁶⁾ 야경원들이 통금위반자를 폭행하는 일도 비밀비재했다.²⁷⁾ 『청맥』창간호(1964.8)에 실린 백인빈의 단편소설 『반짝이는 것과 빛소리』에서 통금위반자는 억울함을 이렇게 항변한다. 통금이 시민의 신체와 정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면이다.

“임마, 말할게 들어라! 내가 재미붙은 무슨 통행금지 위반을 했다는 거야! 난 씨이렌이 울리기에 그 자리에 들어누었던 말야! 한 발자국도 더 떼지 않았단 말야! 아, 통행을 했어야 통행금지 위반이지 움직이지도 않은 내가 통행금지 위반이란 말이냐! 야 임마! 말이 막히니까 주먹질이지? 넌 에미 에미도 없냐, 이 거지 발싸개 같은 새끼야!”(110p)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고 통금 전에 귀가하려는 사람들로 서울은 교통지옥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²⁸⁾ 통금직전에 과속으로 달리던 택시가 사람을 치었다는 기사²⁹⁾도 적잖이 발견된다. ‘통행금지’는 북한외의 위협을 국민에게 일상적으로 환기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야간작업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³⁰⁾

해방 직후 미군정이 야간통행금지를 시작한 이래로 이런 일상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다. 이 반복은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박동하는 주요한 리듬

숙, 「라디오의 사회문화사」,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360쪽 참고

26) 「도둑 쫓던 시민도 “통금위반이다”…… 이 통에 놓쳐버려」, 『조선일보』, 1968. 3. 6.3면.

27) 「야경원에 집단폭행, 통금 지난 서울 밤은 공포지대」, 『조선일보』 1960.9.7.3면. ; 「통금위반으로 연행됐다 형사에 매 맞고 중태」, 『조선일보』, 1969.8.9.7면.

28) 「10년 방치된 밤의 교통지옥, 통금러시」, 『조선일보』, 1969.3.27. 7면.

29) 「통금 10분전 폭주택시 충돌」, 『조선일보』, 1968.10.4.3면. ; 「세 곳서 행인치고 도주, 통금 전 과속차량」, 『조선일보』, 1968.12.27.3면. ; 「통금에 쫓기던 자매 치여 중상」, 『조선일보』, 1964.12.23.

30) 이종구 외,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2, 34쪽.

이 되었다. 이 리듬과 함께 국민의 신체에 규율 권력이 기입된다. 밤의 대기를 관통하는 통치권자의 힘 앞에서 사람들은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낭패감을 느끼고, 당황하여 꼼짝할 수 없고, 끝내 비굴함을 느끼는 정동의 지배를 받는다. 통금의 밤은 한낱의 변화가의 ‘소음’과 비교해 훨씬 조용한 상태일지 모르나 ‘소리’와 ‘공간’, ‘정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집요하며 유해하다.

그런데 통금의 밤은 순도 높은 박 정권만의 사운드스케이프였던 것은 아니었다. 대기에는 ‘붉은 소음’³¹⁾이 스며들어 있었다. 남한에서 북한방송을 듣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북한의 전파는 휴전선 따윈 상관 않고 라디오 수신기로 날아들 수 있었다. 일본이나 중국의 라디오 방송을 듣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963년 1월엔 대구의 한 소년이 마을 엠프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북한 방송이 나가는 바람에 반공범위반으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³²⁾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를 보면, 일제 총독부 잔당들의 해적방송 ‘총독의 소리’를 깊은 밤 경청하는 시인이 등장한다. 이 연작 소설이 처음 발표된 때가 1967년이였다. ‘총독의 소리’의 방송내용도 제6대 대통령 선거 및 제7대 국회 의원 선거 종료를 즈음한 논평이었다. 총독은 논리정연하게 작금의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자신들이 알제리의 파시스트들과 연대하고 있음을 자랑하기까지 한다. 그 목소리와 의지가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지만, 방송이 뚝 끊긴 뒤에 또렷이 떠오르는 통금의 밤은 더욱 무서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온갖 억압된 것들의 소리가 귀신처럼 시인의 내면에 울려 퍼진다.

지척지척 내리는 빗소리와 아울러 들려오던 방송은 여기서 뚝 그쳤다. 그는 어둠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창틀을 짝 움켜잡으며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더 어두운 소리들이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피아노 치는 손마디 소리, 부스럭대는 엽전뉘 소리, 올빼미의 목친 울음. 어딘가에서 다리미질하는 은밀한 소리, 니나노 니나노, 창백한 손마디에 쌍가락지 끼는

31) 『한국 뒤덮은 불청객전파』, 『경향신문』, 1964.11.4. 5면. ‘붉은 소음’이란 표현도 이 기사에서 인용했다.

32) 『엠프 건드려 북괴방송 3분간』, 『경향신문』, 1963.10.3면.

소리, 눈구멍에 최루탄이 박힌 아이의 신음 소리, 유세장에 실려 가다가 객사한 늙은 아이들의 허기진 울음, 총독의 피문은 너털웃음. 시인의 흐느끼는 소리 — 오 아시아의 비극의 밤은 길기도 함이여. 그리고 아주 가까이 아주 아주 가깝게 들리는 소리. 아구구아구구아구구아구구구구. 비명. 아구구아구구아구구구구. 뱃소리와 범벅으로 어우러져 들려오는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제일 가깝게 들려오는 이 소리는 그의 목구멍 속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총독의 소리』, 『총독의 소리』, 문학과지성사, 1999, 87~88쪽.)

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질락도 감옥에서 남긴 그의 비통한 회상록에서 휴전선의 공기를 가로지르는 남북의 전파월경에 대한 체험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는 북으로 향하는 간첩 공작선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남한의 KBS 방송을 듣는다.

나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으나 잠이 올 것 같질 않았다. 생각하면 꿈같은 게 앞길이 깜깜했다. 라디오를 꺼내 이어폰을 꽂았다. 그리고 스위치를 넣고 라디오를 들었다. 간간이 찌어찌의 소리만 나지 않으면 괜찮겠다. KBS가 나왔다. 평양방송이 나왔다. KBS로 다시 다이얼을 맞췄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고요한 이 한밤에 북으로 향하는 북괴 무장 간첩 공작선에서 KBS를 듣는 기분은 아무도 모른다. 고향이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사연이 끝나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배는 어디쯤 떠 있는 것일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애들도 잠들었겠지. 모두들 잠들었겠지.

(김질락, 『어느 지식인의 죽음』, 행림출판사, 1991, 204쪽.)

김질락은 적어도 ‘소리’의 세계에서만큼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장소 구분과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것은 그의 복잡한 정체성과도 일치한다. 남한의 ‘국민’이면서 북한의 ‘간첩’이었으며, 어쨌거나 동아방송 ‘유쾌한 응접실’의 애청자였던 김질락의 정신세계는 과히 분열적이다. 하지만 그런 증환(sinthome)은 김질락만의 예외라기보다, 휴전(休戰) 중인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 억압을 좀 더 투명하게 반증한다.

우리는 그날 일찍 주암산으로 돌아왔다. 나는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몹시 피곤을 느끼고 있었고 담배를 심하게 피운 나머지 혀는 갈라지고 목엔 가래가 들끓었다. 그러나 정신적 긴장감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나는 저녁을 먹고 난 후 방에

되돌아와 침대 위에 드러누운 채 라디오의 스위치를 틀었다. 오늘 밤에는 기어코 동아방송을 한번 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때 동아방송의 인기 프로 ‘유쾌한 응접실’을 비롯해서 연속드라마 ‘장난감 파수병’과 ‘기정수’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내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듣는 애청자였다. 단순히 애청자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평양에서 남한의 민간방송을 들어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의의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밤은 끝내 동아방송을 듣지 못했으며 훗날에 약한 시간 동안 동아방송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문규에게도 들어 보라고 권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질락, 『어느 지식인의 죽음』, 행림출판사, 1991, 340~341쪽.)

새로 산 금성 전축 세트³³⁾로 이북방송을 듣던 김수영도 이 소리를 ‘불온 不穩’한 것으로 느끼지 않게 될 날이 있으리라 예감한다.³⁴⁾ (『라디오界』) 하지만 박정희 정권 역시 이런 청취를 속수무책으로 내버려두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방송도 국방의 영역이었다. 1974년부터 대전력 송신소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는데, 방송권 확장의 목적뿐만 아니라 전파월경을 교란하는 설비이기도 했다.

33) 이때의 감회를 적은 시가 『금성 라디오』(1966)다. “금성 라디오 A504를 맑게 개인 가을날/ 일수로 사들여온 것처럼/ 5백원인가를 깎아서 일수로 사들여온 것처럼/ 그만큼 손쉽게/ 내 몸과 내 노래는 타락했다 // 현 기계는 가게로 가게에 있던 기계는/ 옆에 새로 난 쌀가게로 타락해가고/ 어제는 카시미롱이 들은 새이 불이/ 어젯밤에는 새 책이/ 오늘 오후에는 새 라디오가 승격해 들어왔다// 아내의 이런 어려운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해치운다/ 결단은 이제 여자의 것이다 / 나를 죽이는 여자의 유희다/ 아이들은 라디오를 보더니/ 왜 새 수련장은 안 사왔느냐고 대들지만”

34) 김수영이 『라디오界』를 썼던 1967년 당시 북한의 대남방송은 2개 주파수로 방송됐던 ‘남조선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이 있었다. 이 방송은 1969년 9월에 출력을 10Kw에서 300Kw로 증강했다. 남한에 속속 대전력 송신소가 건립되었지만 북한 역시 1975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송 출력을 증강했다. 1970년 6월부터 방송되기 시작한 ‘통혁당목소리방송’은 1973년 11월에 1개 주파수를 추가로 늘리고 방송시간도 1일 17시간 30분으로 늘린다. ‘통혁당목소리방송’은 1985년 8월부터 ‘민민전방송’으로 이름을 바꿨다. - 남북문제연구소, 『민민전의 정체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1994, 28쪽 참고

5. 앰프村的 음향공동체

국가라는 거대한 ‘앰프’는 공포와 폭력으로 국민을 억압하기만 한 게 아니었다. 박정희를 지지하게 만드는 정동적 동원과 전염이야말로 ‘앰프’의 각별한 효용가치였다.³⁵⁾

박정희는 1961년 8월 24일자 법률 제692호 ‘유선 방송 수신 관리법’을 공포하여 아무런 법적 규제를 안 받던 앰프村 사업의 범위를 뚜렷하게 규정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주요조항만 발췌해 인용한다.

제 1조(목적) 본 법은 유선 방송 수신 사업을 적절하게 관리 조장함으로써 **국가 시책의 신속 정확한 보급과 국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허가) ① 유선 방송 수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선 방송 수신 시설을 갖추고 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조(유선 방송 수신 사업의 범위와 그 내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유선 방송 수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송의 범위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영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

2)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의 방송, 단, 광고 방송은 하지 못한다.

3) 기타 각령으로써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체 방송 제 10조(보조금) 국고는 본 법에 의하여 유선방송 수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³⁶⁾

이 법에 이어 9월 22일자로 각령 143호로 시행령이 각의를 통과한 후, 앰프촌은 ‘국가 시책의 신속 정확한 보급’ 수단으로써 자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온 벽촌을 뚫고 들어가는 새로운 매체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앰프村³⁷⁾은 “거미줄처럼 마을 구석구석”에 침투한 “관(官)의 선전망”이

35) Steve Goodman, 윤전화 역. 『음향전(sonic warfare)이란 무엇인가』,

(<http://som.saii.or.kr/archives/feature/sound-politics/974>) (원전: Steve Goodman, *Sonic Warfare: sound, affect & the ecology of fear*, MIT Press, 2009)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음을 밝혀둔다.

36) 『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311쪽. 강조는 인용자

37) 앰프村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선 그다지 복잡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다. 일반적

었다. 1967년 대선과 총선을 앞뒀을 때는 밤낮으로 선전방송을 틀어댔다.³⁸⁾ 1963년 대통령 선거 때에도 경찰이 직접 나서서 “국영방송 중계하리”고 간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³⁹⁾ 주로 박정희의 수출주도 계획경제의 결실을 알리는 내용이었고, 그의 정치적 인기도를 높이는 데 적잖이 도움을 줬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수 없는 문맹의 촌노(村老)도 마을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박정희의 업적을 듣고 그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었다.

1957년부터 정부주도로 앰프村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1962년에는 앰프村의 숫자가 1,611개(정부 736/ 민간 875)로 늘어났고 32만 가구, 약 2백여만 명이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⁴⁰⁾ 1962년은 농어촌에 라디오 앰프 보내기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해이기도 했다. 앰프村의 숫자는 1967년까지 3,728개로 늘어나게 된다.

1963년에는 실종 어린이 ‘두형군 찾기’가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됐는데, 라디오와 앰프村의 네트워크가 활용됐다. 이 아이디어는 아시아 레코드 사장 최지수가 냈다. 시골에는 유성기 있는 집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몇 년 사이에 앰프 시설이 광범위해진 데다가 레코드의 지방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두형 군을 찾는 노래를 인기가수가 불러 음반을 배포하면 실종 어린이를 찾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란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반야월 작사 나음파 작곡 이미지 노래의 <두형이를 돌려줘요>라는 레코드가 제작됐다.⁴¹⁾ 이 노래는 일질이 끝난 뒤에, 이미지의 애절한 내레이션이 흐른다.

으로 가정에서 쓰는 라디오에 스피커를 여러 개 다는 것만으로도 앰프村을 만들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시스템에서는 각자 듣고 싶은 방송 주파수를 선택할 순 없지만 스피커의 볼륨을 조절해 소리의 크고 작음을 조절할 수는 있었다.

38) 『현실(10) 보고가는 마을』, 『동아일보』, 1963.8.27.1면.

39) 『앰프촌에 경찰간섭』, 『동아일보』, 1963.11.21.7면. 이밖에도 1962년 8월 19일부터 KBS 라디오에서 <농가 방송 토론그룹 시간>이 방송됐었다. 본래 취지는 집단청취와 토론활동에 기초한 성인 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이었으나 정작 프로그램의 내용이 정부 시책 홍보 위주였던 터라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1964년에 종영했다. (『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314~315쪽 참고)

40) 『피겨걸 앰프촌』, 『동아일보』, 1962.7.19.4면.

41) 『노래로 번지는 두형이 찾기』, 『경향신문』, 1963.6.21.7면.

“여보세요. 제발 애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천진한 어린 것을 제 품에 꼭 돌려보내 주세요. 네, 세상에 부모마음은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정말 애원이에요.”

같은 레코드에 수록된 동요조의 또 다른 곡 <두형아>에서는 두형 군 어머니의 실제 육성이 흐른다.

“두형아! 울지 마라. 응? 착한아가지? 울면 바보야…… 아저씨 아줌마 말 잘 듣고 엄마아빠 보고 싶거든 네가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 응 「기타부기」 말이야”

이 노래는 전국 곳곳의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고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레코드와 라디오, 앰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소문이 합해져 가히 ‘두형이 찾기 신드롬’이라 할 만한 현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형이를 보았다는 제보가 도처에서 이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헛소문이거나 악의적인 헐뜯기에 불과했다. 그 후 몇 해가 지나도록 두형 군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두형이 찾기 신드롬’은 ‘어린이유괴 공포증’으로 뒤바뀌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번져나가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⁴²⁾

앰프를 범죄자 수배에 이용해 검거에 성공한 일도 있었다. 1962년 8월 2일, 청천 중학교에 다녔던 1학년생 이현우 군은 청천리 생고개에서 불량배 네 명에게 현금 86원을 강탈당했다. 사건 직후 이현우 군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앰프를 통해 각 촌락에 수배를 해서 후평리 부락청년들의 도움으로 범인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⁴³⁾ ‘앰프’가 마을과 마을 간의 음향 공동체를 잇는 매개이자 메신저 역할로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간벽지에까지 앰프가 설치되고 대중가요를 즐겨 들을 수 있게 되자, 지방 고유의 민요는 60대 이상의 노인층만 희미하게 기억하게 됐을 만큼⁴⁴⁾ 시골 풍속도 빠르게 변화했다.

1967년 3월 22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대중大衆 속의 연예演芸」이라는 기사에는 통일호 3등 객차에서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 젊은이의 대화가 스

42) 『혹시 우리집 애가 어떻게 된 건 아닐까』, 『동아일보』, 1963.4.15.3면.

43) 『4인조강도 앰프를 통해 수배』, 『경향신문』, 1962.8.5.3면.

44) 『사라져가는 민요수집』, 『경향신문』, 1968.5.18.5면.

캐치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

“지난번 시골에 가보니 모르는 노래가 없더군요. 발같이하는 농부가 동백 아가씨를 부르면서 일할 정도니까. 앰프와 라디오 덕택이죠.”

“원래 농촌의 유행가는 애조의 것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노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앰프와 함께 등장한 농촌의 새로운 풍속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다음은 『동아일보』1962년 2월 3일에 보도된 기사다. 마을사람들이 앰프 시설을 세무서의 밀주단속을 피하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서광주 세무서에서는 지난 12월 중순과 1월 초순에 두 차례나 관내 본촌(本村) 등 모부락에 밀주단속을 나갔으나 번번이 실패. 그 이유를 알아보니 그 부락은 「앰프」촌으로 거의 집마다 유선방송시설이 돼있어. 이들 밀주 단속반이 부락어귀에 들어서기만 하면 곧 「마이크」를 통하여 “각 가정에 알려드립니다. 지금 세무서에서 밀주 단속을 나왔으니 빨리 감추십시오”라고 방송을 해왔다는 것. 인보상조(隣保相助)의 정신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위정당국을 골탕 먹인대서야 「앰프」촌 설치의 근본취지와는 어긋나지 않을까?

이 기사는 국가기구에 접속된 ‘앰프’村的 음향 장비가 일방적으로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증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 지역 음향공동체의 어떤 특이성에 앰프가 전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어떤 권력이나 기계 시스템에 의해 완벽히 장악되고 통제·구성될 수 있는 청각계(audiosphere)가 있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편집중적 망상이다. 그러나 박 정권은 그게 가능하리라 믿었고 검열과 단속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 갔다. 그것은 ‘장소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의해 ‘소리’의 세계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대기가 고정되어 있을 수 없듯 소리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음향공동체 그리고 사운드스케이프는 본질적으로 ‘소음’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어떤 종류의 ‘소리’ 혹은 ‘듣기’를 이루는 성분 가운데 이질적이거나 반동적인 게 섞여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건 ‘소리’ 그 자체

의 성질과는 무관한 이념적인 판단의 소산이거나 그때의 음향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과의 관계의 속성에 근거한 문제다. 따라서 또 다른 이념과 사회관계 속에서 ‘소음’은 손바닥 뒤집듯 ‘소음’이 아닌 게 될 수 있다. 앰프와 라디오도 그 자리 그대로에서 완전히 다른 사회적 배치 속에 놓일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는 변화가 더디고 요원했던 시간이었다.

6. 시인과 소음

1969년이 되면 라디오가 202만 4천 대, 스피커 130만 7천 대, 텔레비전 21만대, 앰프는 7,466대로 524만 6천여 가구에 방송 수신기가 보급된다. 이 때문에 “거리에도 집에도 음악이 쏟아져 나온다. 콩나물시루같이 승객을 뺨뺨이 태우고 소음의 거리를 달리는 버스가 스피커로 방송음악을 뿌린다.”⁴⁵⁾며 지긋지긋해하는 사람들도 늘어 갔다. 그 가운데 김수영은 유난스러운 한 명이었다. 그는 유행가를 크게 틀어대는 버스 운전사와 한바탕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⁴⁶⁾ 하지만 자신이 엉뚱한 데다 화풀이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越南과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 1965)할 때는 정작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고작해야 버스 기사와 유행가 문제로 언

45) 『음악의 남용』, 『경향신문』, 1969.12.13.5면.

46) “한번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인간인지 며칠 전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밤에 술이 취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수가 귀청이 터지게 유행가를 틀어놓고 있더라고. 참다못해 앞으로 나가, ‘이봐 운전수, 라디오 좀 꺼’하고 냅다 소리를 질렀대요. 이 차 안에는 당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 당신 혼자 좋아한다고 이렇게 크게 틀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례가 되지 않느냐. 시내버스가 서울 시민에게 없어서 안 될 필수 교통수단이라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 아니냐. 당신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 판인데 우리가 당신 기본을 맞춰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운전수가 노래를 싫어하는 것은 손님뿐이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좋아한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현실을 똑똑히 보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 보았더니, 차내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려, 술을 마셨으면 좋게 삭힐 일이지 무슨 개지랄이냐는 비난의 눈치들이더라고요.”(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학사, 2003, 346쪽).

쟁을 벌이는 그는 자칭 “自爆을 할 줄 아는 속물”(『이 거룩한 속물들』)이었다.⁴⁷⁾

김수영은 자신을 둘러싼 1960년대의 ‘소음’과 불화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김수영은 5·16쿠데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가장 몸서리치게 두려워했던 청취자였다. 그렇기에 박정희 정권이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국민을 향해 쏟아내고 되먹임하는 과정에 유독 민감했던 것도 당연했다. 김수영에게 그 ‘소리’는 타협하고 싶지 않은 불쾌한 ‘소음’에 불과했다.

무허가 이발소의 딱딱한 평상에 앉아서 순차를 기다리는 시간처럼 평화로운 때는 없다. 시내의 다방이나 술집 중에서 어수룩한 한적한 분위기를 찾아다니는 것을 단념한 지는 벌써 오래고, 변두리인 우리 동네의 이발관에까지도 요즘에 와서는 급격하게 <근대화>의 병균이 오염되어서 라디오 가요의 독재적인 연주에 다가 미인계를 이용한 착취까지가 가미되어 좀처럼 신경을 풀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 좌석버스나 코로나택시에서까지도 가요팬의 운전사를 만나게 되면, 사색은 고사하고 그날 하루의 재수가 엉려질 만큼 신경고문과 세뇌교육이 사회화되고 있는 세상에서는 신경을 푼다는 것은 하나의 위법이요 범죄라는 감이 든다. <무허가> 이발소에서야 비로소 궁색한 사색을 위한 신경휴식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사색이 범죄라고 아니 말할 수 있겠는가. 하기는 무허가 이발소에도 라디오의 소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향군무장(鄕軍武裝)을 보도하는 투박한 뉴스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인기배우를 모델로 한 전축광고 포스터 같은 것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그래도 수십 명의 승객들의 사전 양해도 없이 제멋대로 유행가를 마구 틀어놓는 운전사의 무지와 무례에 비하면, 무료한 이발사의 이 정도의 위안은 오히려

47) 위의 글에서 김수영을 ‘自爆할 줄 아는 속물’이라 썼을 때의 의미는 다음의 맥락에 일치한다. “한국 근대사 최초의 ‘진정성의 속물’이 다름 아닌 김수영이었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다. 4·19의 실패가 열어놓은 60년대적 비루함을 활강했던 대표적 시인 김수영의 삶의 궤적에는, 80년대적인 것의 소멸 공간을 가로지르는 386세대적인 체험을 선취하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타계를 일년 앞둔 1967년 5월에 『동서춘추』에 실은 짧은 에세이 『이 거룩한 속물들』에서 그는 쓴다. “이 내가 되는 일, 진짜 속물이 되는 일, 말로 하기는 쉽지만, 생활만큼 어렵다. 그리고 그만큼 고독하다. (……) 고급속물은 반드시 고독의 자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내가 말하는 고급속물이란 자폭(自爆)을 할 줄 아는 속물, 즉 진정한 의미에서는 속물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김수영, 1967:243-3). 메시지는 명료하다. 자신이 속물임을 아는 한에서 그는 고급속물이라는 것이며, 고급속물은 스스로를 부정함으로써 속물임을 벗어난다는 것이다.”(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0, 56쪽).

소박한 편에 속한다.

(김수영, 『무허가 이발소』(1968), 『김수영 전집2 산문』, 민음사, 93쪽)

무허가 이발소의 ‘소음’에서 그는 온 사방으로 전염되는 ‘근대화의 병균’을 읽는다. 라디오 가요에 이어 향군무장의 투박한 뉴스 소리가 들리는 이 발소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이곳이 별 수 없는 박정희 정권 아래의 남한임을 지시한다. 이 ‘소음’에 끝내 익숙해지지 않으면서, ‘소음’의 존재 자체를 따돌려버릴 수 있기를 김수영은 항상 바랐다. 그것이 그에게는 ‘문학’이었으며 정신의 망명이었다.

소음에 대해서 한 편의 논문을 너끈히 쓸 수 있을 것 같다. 소음이라면 너무 점잖다. 시끄러운 것이다. 시끄럽다는 것도 추상적이다. 우리 집 바로 옆의 철창 만드는 공장의 뿜질하는 소리다. 이 공장이 무허가로 선 지가 자유당 말기 때니까 여러 해 된다. 그동안에 소음의 철학을 얻었다. 소음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다. 뿜질하는 소리는 매미 우는 소리보다 좀 더 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여름에는 바깥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더 크게 들린다. 지잉-지잉-지잉-지잉-잉잉잉잉. 이 소리가 나면 문학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어야 한다. 이 소리를 듣고도 안 들릴만한 글을 써야 한다. 나의 시 속에 요설이 있다고들 한다. **내가 소음을 들을 때 소음을 죽이려고 요설을 한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시를 쓰는 도중에도 나는 소음을 듣는다. 한 1초나 2초가량 안 들리는 순간이 있을까. 있다고 하기도 없다고 하기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것을 말하면 <문학>이 된다. 그러나 내 시 안에 요설이 있다면 <문학>이 있는 것이 된다. 요설은 소음에 대한 변명이고, 요설에 대한 변명이 <문학>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 (중략) …… 휴식을 바라서는 아니 되고, 소음이 그치는 것을 바라서는 아니된다. 싸우는 중에, 싸우는 한가운데에서 휴식을 얻는다.**

(김수영, 『시작 노트』(1966), 『김수영 전집2 산문』, 민음사, 307쪽 강조는 인용자)

신동엽 시인도 ‘근대화의 병균’ 같은 ‘소음’을 혐오한 사람이었다. 그는 『시끄러움 노이로제』(1968)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도시 환경이 자신의 신체에 가하는 정동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보호 장비를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고 말한다. 귀를 막는 솜과 색안경이 그의 보호구였다.

요새 나는 흔히 두 귀를 솜으로 막고 다니기가 일쑤고 색안경은 거의 날마다 쓰고 다니게 됐다. 빛깔이 있는 안경을 쓰면 시끄러운 원색 양철조각들이 조금은

부드럽게 보이기도 하거니와, 정 보기 싫은 것이 있다면 눈을 슬그머니 감고 있어도 아무도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니까 이상히 생각할 사람이 없어서 좋다. 그런데 두 귀를 솜으로 막고 다니는 문제만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얼마 전 골목 길을 걷다가 자동차한테 봉변을 당했다. 최신형 자가용 하나가 내 오금 뒤에서 급정거를 했다. 클락슨 소리를 못 들었냐는 것이다. 그 길이 내가 알기로 분명히 <제차 통행금지> 구역이었지만, 따지다 보면 귀 속의 솜도 뽑아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시끄러움은 더욱 큰 시끄러움의 시련을 겪어야 할 것 같기에 아무 소리 없이 피식 웃어주고 내 발길을 재촉했다.

(『시끄러움 노이로제』, 『신동엽전집』, 창작과비평, 2009, p.349. 이하 페이지만 표기.)

신동엽은 자신이 ‘시끄러움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 자신보다 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온갖 소음으로 소용돌이치는 도시라고 비판한다. 그를 유독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생활의 소음 그 자체보다는, 그것들이 박정희 식 개발독재가 만들어낸 근대화 산물이라는 사실이었다. ‘소음혐오’에 관한 한 김수영과 신동엽은 함께 앓는 쌍생아였다. 그러나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마주하는 신동엽의 대응은 김수영보다 좀 더 적극적이었다. 그는 박정희와는 다른 의미에서 ‘앰프’이고자 했다.

1959년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며 등단한 이후 간암으로 별세하는 1969년까지가 신동엽이 시인으로 활동한 기간이었다. 신동엽보다 한 해 일찍 세상을 떠난 김수영도 60년대의 시인이었다. 이 시기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전기 미디어가 빠르게 대중화하고 앰프촌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과정과 맞물려 있다. 신동엽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환멸을 느끼고 배격하기보다는 직접 그 안에서 활동하길 마다하지 않는 미디어 활동가였다. 1967년에서 1968년 사이,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 마음 끝까지>라는 코너를 진행했었다. “아직 안 주무시고 이 시간을 기다려 주셔서 고마워요.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군요. 좀 더 가까이. 좀 더 다가오셔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요”라는 오프닝멘트와 함께 그는 전파와 라디오 수신기를 매개로 청취자들과 음향공동체를 이뤘다. 이 시기에 그는 원고지 350페이지 분량의 라디오 극본 『불쌍한 남덩어리』를 쓰기도 했다.⁴⁸⁾

48) 이 작품은 방송되지 못한 미발표작으로 창비판 신동엽 전집에도 수록되어 있지

그는 1966년에 시극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을 국립극장에 올리고, 1968년에는 오페라 『석가탑』을 쓰고 제작했다.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의 마지막 장면에서 신동엽은 자신의 음향전(sonic warfare)을 관객들에게 직접 들려주고 싶어 했다. 제트기 폭음과 기관포 사격소리가 그치고 난 뒤, 솔바람 소리와 산새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우리 앞에 마땅히 현현해야 할 세계의 사운드스케이프, 그 의미는 신동엽이 궁극에 지향하고자 했던 평화와 자연의 비전에 일치한다.

(남, 여, 서로 팔을 뻗는다. 마주 잡으려고)

(귀를 째는 제트기 폭음 머리를 스쳐 하나가 지나간다. 이어 또 하나의 제트기 폭음, 가까이 내려오면서, 따, 따, 따, 따, 따, 따하는 기관포 사격소리. 무대는 온통 불꽃 바다가 되면서 오색조명 회전한다. 소리 멎고 무대 점점 안정되며 밝아지면서 남, 녀의 늘어진 시체 어슴푸레 나타난다. 늘어진 두 시체, 서로 한쪽 팔을 길게 뻗어 맞잡으려고 했으나, 겨우 두 손가락이 닿을 듯 접근해 있을 뿐이다)

(하늘 높은 솔바람 소리. 그리고 평화스런 산새들의 노랫소리. 밝고 가벼운 음악, 상승되면서) (340쪽)

하지만 신동엽과 김수영이 성취한 1960년대의 가능성은 아쉽다. 신동엽의 음향전이 좀 더 진척되지 못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던 것은 그 자신의 암세포 때문이었다. 김수영도 불의의 버스 사고로 1960년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망했다.

박정희의 시간은 1960년대를 넘어 70년대의 끝자락까지 연장됐다. 라디오의 전성기는 1970년대의 텔레비전 보급과 함께 저물어서 1968년을 기점으로 앰프촌 건설 사업도 차차 중단되게 되었지만⁴⁹⁾, 새로운 전자 미디어의

않다. 신동엽의 유가족은 부여의 신동엽문학관 개관과 함께 이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49) “앰프촌, 즉 유선 라디오가 가장 성한 시기는 1968년을 전후한 때로 볼 수 있는데, 이때엔 시 또는 군청 공보실에 유선 방송 센터를 설치하고 관내의 앰프와 유선으로 연결, 시나 군 당국에서의 홍보 및 협조 사항을 아나운서를 두고 직접 앰프 가입자에게 방송하는 시스템으로까지 발전해 있었다. 1963년에는 사단 법인 전국 유선 방송 협회가 탄생했고 1968년초 현재 그 회원은 약 2,000명, 유선 방송 시·군 센터 약 150, 앰프 5,500, 스피커 130만을 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라디오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에 반비례하여 유

발전과 함께 독재정권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7. 결론을 대신하여

그리고 지금 여기. 과연 우리는 최악을 지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작년 (2010년)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음향대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여론의 반대에 밀려 무산되긴 했지만,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가 국민의 신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여지없이 노출한 자기 폭로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자본의 사운드스케이프도 음향대포 이상으로 유해하다. 걸그룹의 최신유행가를 볼륨 가득 틀어놓은 통신사 대리점의 사운드스케이프는 현대성의 극치를 집약한다. 여기엔 극도로 가속된 거리와 일상의 리듬뿐만 아니라, 이를 허겁지겁 따라잡고 억지로 투입하려는 노랫소리와 이 현상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신체가 온통 뒤엎혀 있다. 이런 풍경이 현대 자본주의의 총애를 받는 최첨단 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앞으로 상당기간 이 나라는 분단국가다. 따라서 휴전선 일대에 설치된 '대북방송장비'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장비로 우리 군이 방송하려는 '소리'는 미소녀 아이

선 라디오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위 표에서 앰프 수는 늘어났으나 오히려 스피커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시·읍 중심의 대단위 앰프촌이 라디오의 보급으로 먼저 폐쇄 내지는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경우 라디오 및 스피커 보급률은 인구(3,146만 9,000)비 9.7%, 가구(586만 4,333)비 52.1%로 아직도 앰프촌의 존재 가치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년 월	앰 프	스 피 커	라 디 오	계
1963.4	2,348	539,137	892,571	1,431,708
1965.12	-	850,274	1,107,526	1,957,800
1967.12	5,782	1,326,563	1,524,804	2,851,367
1970.8	7,286	512,884	2,540,375	3,035,259
1971.12	6,060	369,034	3,400,340	3,769,374

- 『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312쪽.

돌의 유행가다. 소녀시대, 카라, 티아라, 달샤벳이 '음향전'의 포탄이다. 북한에서도 이 공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대북방송이 재개되면 조준 사격해서 장비를 파괴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방부도 이 때문에 방송재개에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소녀시대의 'Gee' 때문에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북방송장비'는 말 그대로 '음향대포'로 배치된 것이다.⁵⁰⁾ 우리를 둘러싼 사운드스케이프를 똑바로 지각해야 할 때다.

신동엽 사후 첫 번째 기일에 맞춰 『사상계』 1970년 4월호에 유고시 「좋은 언어」가 발표됐는데, 이 시는 다가올 세대를 위한 음향전의 지침으로 읽어 마땅하다.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우자. 소박하지만 진실 된 이 한마디를 실천할 수 있다면, 권력의 부정한 사운드스케이프를 새로운 소리들로 바꾸고 억압된 정동을 회복할 수 있는 거점을 우리의 신체에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언어」를 다시 읽어본다.

때는 와요
우리들이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때까진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해요.

50) 아이들의 음악은 한반도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대단히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거리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전선의 초소에 이르기까지 남한 사회를 중형으로 가로지르는 '소리'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수영, 『김수영 전집 1』, 민음사, 2003.
김수영,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03.
신동엽, 『신동엽 전집』, 창작과 비평, 1980.
최인훈, 『총독의 소리』, 문학과 지성, 2009.
『한국방송60년사』, 한국방송공사, 1987.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청매』, 『조광』, 『사상계』

2. 논문과 단행본

- 김해수, 『아버지의 라디오』, 느린걸음, 2007.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0.
남북문제연구소, 『민민전의 정체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1994.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하면 된다! 떨쳐 일어나자』, 동서문화사, 2005.
백미숙, 『라디오의 사회문화사』,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염찬희, 『1960년대 한국영화 다시 읽기』,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2』, 현실문화, 2009.
요시미 순야, 송태욱 옮김, 『소리의 자본주의』, 이매진, 2005.
이경분, 『음악과 정치 그리고 맥락의 힘』, 웹진 SOUND@MEDIA, 2010.
이경분, 『프로파간다와 음악』,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이종구 외,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2.
이하나, 『1960년대 문화영화의 선전 전략』, 『한국근현대사연구』52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145-180쪽.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 스, 2010.
정경모, 『시대의 불침번』, 한겨레출판사, 2010.
질 들뢰즈, 서창현·김상운·차울평번역모임 역, 『정동이란 무엇인가』,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05.
천정환, 『간첩과 영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 1960년대 후반 반공영화 텍스트의 생산맥락을 중심으로』, 『2010년 한국현대매체연구회 4·19혁명 5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0.10.2, 1-21쪽.
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화사, 2003.

Abstract

The Soundscape of Nation and the Imaginative Power of Red Noise
— For the study of the literature history of the sound in the 1960s (1)

Lim, Tae-Hun

The era between 1961 and 1968 in Korea was not only a period of political turbulence with The May Coup, the twists and turns on the Korean-Japanese Conference, and two sessions of Presidential Elections, but also was a period of unique role for change of media environment. In this period, radio broadcasts were provided nationwide for nationals beyond the limit of Seoul local influence formed during Japanese rule, and unlike in other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radio broadcast scope exceeded the supply of radio devices nationwide. Such was an outcome of the amplifiers installing project executed as one of top priority projects of press policy immediately after the May Coup, and of course a plan for active utilization of radio broadcast as tool for propaganda. The government facilitated so that even the aged in remote villages can frequently hear how 'well' the regime is doing anything now. This project came to a standstill after 1968 when the initiative of media environment is passed on to television. By this period, radio was stabilized as a holistic media for nationals that any household in the nation kept at least one unit of it, but after all came to be left behind in prevalence due to the typical limitation of frequencies. The radio broadcast got on it track back to the experience of private sound from group hearing.

In the meantime, even until mid-1970s, the broadcasting capacity of South Korea fell behind that of the North counterpart, and thus radio transgression was a usual occasion not surprising at all. The days when the North Korean broadcasts toward the South which was so-called the 'Red Noise' could be heard in quite clear quality was the 1960s. Listening to the 'Red Noise' was an act in violation of the Anticommunist Law. However, such North Korean broadcast was a covert media that enabled the people secluded in the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ruled by the Park Chung-Hee to imagine the other 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d Noise' could be better heard during the night of curfew and was ever elevated to an experience that cannot be confessed rashly. The nights of the 1960s were just ironical. The nights were under curfew rather outspokenly by the soundscape of the government that instructed the nationals under the excuse of

synchronization of physical rhythm. In the midst of all that, the 'Red Noise' that outreaches the truce line without getting any restriction across the atmosphere of silence raised vortices in the time by stirring up rebellious ideas to those who felt suffocating about the 'government' of Park Chung-He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three soundscapes that resisted the time(1961-1968): the soundscape of the government which is reflected through amplifiers village construction project, propaganda and 'curfew'; the 'Red Noise' that stirs up cracks of the soundscape of the government; and lastly the sonic warfare of those that do not harmonize with the 'sound' of the government and modernity. The group of people surrounded by the three soundscapes were placed and raised in the seat of nationals, but also they were set apart among themselves.

This is specifically a query for the following questions: In Choi In-Hun's novels 「The Sound of President」 (1969) and 「The Sound of Governor-General」 (1967~1968), why the listener of the pirate broadcast of the underground depart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in Shanghai was set as 'poet' among others? Kim Su-Young put down the moments that he listened to the clear stereo sound of the North Korean broadcast toward the South in 「Radio World」 (1967). What imagination was it that the poet get from the transgressing 'Red Radio' in the South Korean society which was under the regime of Park Chung-Hee that maintained high anti-communism? And why was Shin Dong-Yeop so desirous of loading his own voice in the radio by becoming a disc jockey? This study intends to begin the first work for the study of the literature history of the 1960s sound through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 위 논문은 2011년 4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